

經營合理化를 위한 企業環境의 考察

趙 益 淳

<차 례>

- I. 定 義
- II. 家族制度, 血緣主義
- III. 政治的 不安
- IV. 「인플레이션」
- V. 社會의 諸規範
- VI. 經營合理化를 위한 環境改善方向

I. 定 義

經營合理化란 組織의 目標을 最少의 犧牲으로 達成케하는 實踐方案으로 解釋하고자 한다. 다만 最少의 犧牲이란 社會正義에 違背되지 않는 努力이나 財貨의 犧牲을 意味하는 것이다.

利潤의 追求 또는 極大化는 企業의 窮極的 目標일 것이며⁽¹⁾ 이의 達成을 위하여 竊盜, 強盜나 詐欺와 같은 反社會的 實踐以外的 것중 가장 또는 比較的 적은 努力이나 財貨의 消費로 이룩될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하는 것이 經營의 合理化인 것이다.

經營의 合理化란 組織의 運營에 關聯된 分野에만 適用되는 概念이지 組織體의 政治的活動 또는 影響으로 最少의 犧牲이 되는 領域까지는 擴大解釋하지 않는다.

企業環境이란 企業體(經營의 現場)가 關聯을 가지고 있는 歷史的遺習, 傳統的制度, 思考方法, 現行法律 및 그 運營, 金融制度, 政府政策등을 意味하는 것이다.

經營合理化를 위한 企業環境이란 現在의 企業環境을 限定하고 그것을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指向하고 그것을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指向하지 않으면 안 될 方向을 提示하려는 意圖에서 命名한 것이다. 以下에서는 實證的인 舉證없이도 一般的으로 納得할 수 있는 企業環境의 現實을 展開해 보고자 한다.

筆者: 高麗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1) 利潤의 極大化란 長期利潤의 極大化를 뜻하는 것이지 短期的인 利潤의 極大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II. 家族制度, 血緣主義

Herman Kahn은 그의 著 「The Emerging Japanese Superstate, Challenge and Response」에서 日本經濟가 成長한 諸要因을 分析하면서 日本은 天皇을 最上位에 만들고 있는 巨大家族으로서 國家나 天皇에 대한 忠節이 第一義的이고 個人家族에 대한 孝道 또는 忠節은 第二義的인 것임을 指摘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中國이나 韓國은 孝道 또는 家族에 대한 忠節이 第一義的이고 國家에 대한 忠節은 第二義的인 것으로 序列逆轉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2)

우리의 家族制度는 項列의 權威가 嚴格히 지켜지고 家父長의 權威가 嚴存하며 모든 家族構成員은 孝道와 家族을 위하여 忠誠하는 組織單位이다. 個人의 成功은 家族의 成功을 意味하고 그것이 나아가 國家의 成功을 가져온다는 價值體系인 것이다. 家族의 求心力은 祖上崇拜로서 祭司權은 家父長의 權威의 表現인 것이다.

相續은 長男에게 祭司權까지를 相續하고 그 代價로 보다 더 많은 財產을 相續한다. 우리나라의 財產相續은 男子에게 分割相續하는 制度이며 女權은 女必從夫 思想에 의하여 去勢되어 왔다. 隅谷三喜男 編 「日本人의 經濟行動」에 의하면 日本人의 勤勞精神과 貯蓄心은 日本의 長男單獨相續制度에서 淵源하였다고 한다.(3) 즉 日本의 次, 三男은 살기 위하여 발버둥쳐야 했고, 일찌기 農村을 떠나야 했고 貯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長男單獨相續制度는 資本의 零細化를 막는데도 役割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次, 三男으로 하려금 地主의 戰士로 集結케 하였고 武士道의 正義感을 배웠으며 工業化의 初期에 있어서는 왕초와 딸만이의 勞動組織의 母體가 되어 擬似家族을 形成하여 企業家族主義를 出現시킨 것이다. 이와같은 環境下에서 孝道라든가 血緣的인 家族에의 忠誠이 第一義的인 價值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組織을 위한 忠誠이 第一義的인 價值를 認定받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修身累備制, 年功序列的인 賃金制度를 上臺로 한 企業家族主義가 支配的인 社會風土로 된 것이다.

우리는 分割相續制이기 때문에 모두가 自立精神이 微弱했고 또 農業을 天職으로 알면서 零細化를 부채질 한 事實 “食福은 타고 날다”라는 消極的인 生活態度, 個人의 社會保障, 私有財產權保障이 國家나 其他公共團體가 擔當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不得不 各家族 또는 氏族이 一致團結하여 그것을 爭取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家族至上主義가 어렸을 때부터 徹底히 教育되어 이것이 같은 血緣主義 또는 血緣的인 家族主義를 信奉하기에 이른 것이다.(4)

이 血緣的인 家族主義는 入養制度에서도 明白히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同姓女를 며누리로 삼지 않고 異姓者를 入養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固守하였

(2) 一坂本二郎 風間敏三郎 譯, 「超帝國 日本의 挑戰」, p. 90.

(3) 隅谷三喜男 編, 「日本人의 經濟行動」上, pp. 20~47.

(4) 於東緒, 「韓國官俸制度의 歷史的展開」, pp. 21~22.

다. 그러나 日本은 長子가 無能할 때 能力있는 他人을 入養시켜 家系를 이루어 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制度上的 差異는 國民들의 思考方式에서 血緣의 紐帶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信念을 낳을 것이고 同姓者가 아니더라도 能力만 있고 忠誠만 다 하면 同一血緣의 一家族이 될 수 있다는 前者와 完全히 그 軌를 달리하는 信念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歷史的 그리고 社會的 諸制度는 우리나라의 企業經營에서 다음과 같은 諸與件을 形成하는데 主要한 役割을 하였을 것이다.

- (1) 同族會社(非公開會社)
- (2) 同一血緣者의 重用
- (3) 企業의 社會性에 대한 認識稀薄

同族會社란 會社의 支配權이 몇몇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말하며 法人稅法上的 公開法人을 非同族會社라 본다면 同族會社란 ①小額株主(3%未滿의 株式持分者)의 數가 30名 未滿이고 ②小額株主의 株式總持分이 30%未滿이며 ③一人의 株主와 그 親族 및 特殊關係人의 株式持分이 60%以上인 法人을 말하는 것이다.(5)

同族會社에 관한 우리나라의 統計를 보면 全體法人 7,793個中 非同族法人이 34個에 不過하다.(6) 이는 우리나라 法人의 資本零細性을 뒷받침해 주는 間接的인 資料이기도 한 것이다. 企業經營의 合理化는 規模의 經濟性에서도 찾을 수 있을 진데 同族會社의 絶對多數는 우리나라 企業의 經營合理化가 進展될 수 있는 限界를 意味하기도 한다. 同一血緣者의 重用은 能力있는 非血緣者의 進出을 阻害하고 生産性向上에도 阻害的 役割을 하기 쉽다. 이는 能力主義를 容納하지도 않으며 終身 雇傭制 또는 年功序列制도 容納하지 않을 것이며 非血緣者들의 忠節이나 獻身을 바랄 수 없는 經營風土가 될 可能性이 많다.

同族會社이고 同一血緣者가 重用될 수있는 雰圍氣는 企業이 反社會的인 暴利나 脫稅나 其他 不正行爲가 恣行되는 경우일 것이다. 秘密維持를 위하여는 同族會社이면서 重要地位의 擔當에 同一血緣者를 配置해 둘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個人이 國家나 其他 人에 대해 지고 있는 義務 및 個人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意識, 罪보다도 恥辱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道德律이 孝道나 家族에의 忠誠을 第一義的인 義務로 알고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巧妙한 方法이나 條件充足에 의한 脫稅, 不良食品等 事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Ⅲ. 政治的 不安

오늘날 우리 民族의 性格的인 바탕이 된 다른 하나의 背景은 우리 民族史上的 政治的인 不安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特히 韓國은 外國의 侵略과 文化 및 政治的

(5) 法人稅法, 第22條 3項.

(6) 財務部 稅制局.

인 影響은 우리의 內部的인 政治不安에 加速的인 役割을 하였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朴趾源의 兩班傳(李奭求 譯)에 의하면 “하늘이 네가지 百姓을 냈는데 이 네가지 중에서 선비가 가장 貴한 것이다. 이것을 兩班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兩班은 제손으로 농사나 장사를 할 까닭도 없고 조금만 工夫를 하여 크게 되면 文科에 오를 것이고 적게해도 進士는 되는 법이다. 文科의 紅牌라는 것이 크기는 겨우 두자밖에 되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돈자부라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동네사람들을 시켜서 내 발 먼저 길을 매게하는데 만일 발을 잘 듣지 않는 놈이 있으면 코로 재물을 먹이고 상부를 잡아매서 가진 형을 당한다해도 원망조차 하지 못하는 법이다.”(7) 이는 李朝時代의 兩班階級이 擇할 수 있었던 社會的 職業을 말한 것이며 官人의 特權을 잘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이 李朝社會에서는 兩班階級에 태어난 누구나가 官人만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따라서 그를 위한 競爭은 激甚하여 黨爭의 原因이 되었다고도 한다.

“여기 한그릇의 밥을 굶주린 十人이 달겨들어 먹으려하니 곧 싸움이 벌어진다. 혹은 밥수가락을 컸다든가, 불손한 말을 하였다든가 하여 서로 싸움을 한다. 사람들은 분쟁이 말이나 손짓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 요는 밥그릇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原因인 것이다. 萬若 十人이 各各 獨床을 받으면 뜨기할 마름이지 이찌 싸움이 일어났겠는가”(8)

즉 官職은 一定해 있었고 每年 無責任하게 資格者는 늘어나고 그들의 살 길은 官人이 되는것 밖에 없었으며 萬一 그것이 못되는 경우의 事態는 想像을 超越할 程度로 悲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充分히 그들의 事情을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이들의 비티에서는 官人以外的 生活方途다든지 資格者의 過剩生産을 줄인다든지하는 것과 같은 合理的인 생각은 나오지 않아 結局 無慈悲한 그들 間의 黨爭의 길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無慈悲한 鬭爭의 結果 運이 좋은 몇사람이 官人이 된 다음의 行動은 官人으로 있는 동안 可能的 限의 擄取에 沒頭하게 된다고 하는것은 必然的인 것이라 하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의 關心事는 어떻게하면 競爭者를 쓰러트리고 官職을 차지할 것이며 官人이 된 後에는 어떻게하면 最大限度로 擄取 致富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李朝時代의 經濟的 特徵은 土地의 公有化, 手工業, 商業, 輸送機關 및 勞動力도 國家가 獨占하였다. 商工業은 農業生産을 妨害하고 國民의 道義心을 惡化시킨다고 輕減하였으며 官人이 中間人을 시켜 農民을 對象으로 한 高利貸金業을 營爲하여 中産의 商人조차 發生할 餘地를 남기지 않았다.

農民은 財貨를 稅金으로 國家에 擄取 當하였을 뿐만 아니라 勞動力도 無慈悲하게 擄取 當하였던 것이다. 다만 自己의 分만이 아니라 親族, 村落共同責任下에서

(7) 朴趾源, 「兩班傳」(李奭林 譯) p. 7.

(8) 金龍德, 「近世黨爭史論」, 思想界 5卷 10號, p. 193.

責任을 다하지 못한 他人의 것까지 負擔을 強要 當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擄取된 財貨는 官人들에 의하여 擴大再生産과는 關係없는 일에 浪費되었다는 것이다.

李朝後半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法の 支配보다는 사람에 의한 支配原則이 適用되었고 經濟的으로도 私有財産의 保障이 없었으므로 누구나 그의 집안에서 官人이 되어 保護를 하기前에는 悲慘한 地位에 떨어지므로 官人을 志望하는 動機도 利己的인 個人 또는 家族의 利益을 위한 手段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官人이 되고 난 後의 行態는 능히 얼마나 社會에 害毒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朴齊家は 놀랍게도 일찌기 官職競爭의 結果인 黨爭의 慘禍를 避하기 위하여 兩班도 商工業에 進出케 하자고 主張하였다고 한다.(9) 그러나 그것이 容納되어 一般化하지는 못하여 李朝는 國內政治가 不安하였을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 淸日 및 露日戰爭에 이은 日帝의 強占, 1945年の 解放, 6·25 事變등의 政治的不安定과 激動의 歷史를 거듭해 온 것이다.

政治的不安定 또는 不安定한 社會란 “一定한 社會的인 價値觀이 社會成員에 社會化過程을 거쳐서 內面化되고 또 社會的價値觀의 反映인 社會的規範을 社會成員이 無理없이 遵守하며 社會成員이 社會的規範에서 逸脫하는 行爲를 犯했을 때는 社會的인 制裁가 效果的으로 이것을 統制할 수 있을 때 그 社會는 安定된 社會”(10)라고 한 것에서 미루어 推測할 수 있다.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社會에서는 國民들에게 生活化한 一般的인 健全信條가 形成될 수 없고 社會的規範보다는 權力과 金力이 優先하여 무엇이 正當한 生活樣式인지 分辨하기 困難케 된다. 이와같은 곳에서는 相互不信과 適當主義 그리고 權力과 金力을 위하여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傾向을 낳기 쉽다.

相互不信의 思潮는 企業內部的 人間關係에서 뿐만 아니라 國產品不信, KS標不信, 工業研究所檢査畢品不信, 韓國人不信, 正札制不信, 手票·株式의 不信등의 現象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企業家は 能力있는 他人보다는 能力없는 兄弟, 親戚, 同窓生, 同鄉人을 部長 課長으로 앉히고 消費者는 에누리려, 國產品보다는 外國産을 믿고 政府가 許可한 KS品을, 政府機關인 工業研究所의 檢査畢品을 政府가 調達할 때 需要部處의 自體檢査部署에서 再檢査하는 일, 外國人을 無條件 信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相互不信의 思潮는 모든 決裁를 最高經營者가 直接 行함으로서 中央集權的인 經營思考를 낳았고 最高經營者로 하여금 日常業務에 沒頭케 함으로서 重要的 創造的活動에서 距離를 멀게 하고 있으며 最高經營層이 一線實務者보다 더 바쁜 奇現象을 낳게 한 것이다.

適當主義는 過去の 踏襲으로 結果에 對한 責任을 回避하고 모든 經營者가 特定業務를 自己 혼자 責任지지 않으려고 모든 關係者를 그 業務에 關聯시킴으로써 結

(9) 金龍德, 前揭論文, p. 193.

(10) 洪承稷, 「經濟發展과 價値觀의 問題」, 高대新聞 第407號, 1965. 4. 24.

果的으로 아무도 責任지지 않는 것, 하나의 規則도 臨期應變的으로 適用하여 便宜主義的으로 運用하는 것,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우물우물主義와 八方美人型 人間像의 尊重등이 그 傾向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윗사람의 눈치에 迎合하는 管理, 모체고 억지쓰고 악착같은 自己宣傳的 人間型이 迎合되는 環境의 造成, 業績指向的인 積極的姿勢보다는 無事安逸主義의 造成, 無原則을 原則으로 하는 生活信條, 管理信條의 助長을 가져올 것이다.

權力은 官人의 屬性이며 一定한 社會的規範에 의한 統治보다는 사람에 의한 統治가 行해 진 곳에서는 個人 및 氏族의 自衛策으로 權力에 대하여 악착같은 憧憬을 한 것은 當然한 일이 있을는지 모른다. 權力을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善用하면 經濟의 發展을 招來할 것이나 그것을 家族이나 氏族등 個人을 위하여 利用하는 것은 國家나 民族의 利益에 違背되는 結果를 가져 온 것이다. 特히 權力에는 財物이 따르기 마련이며 權座에 있는 동안 그것에서 떨어진 경우에 對備하는 蓄財가 權力의 個人的利用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李朝의 오랜 期間에 걸친 이와같은 風習은 우리나라의 企業人 또는 一般人의 思考方式을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蓄財를 하고 그것으로 權力을 利用”하게 한 것으로 解釋된다.

密輸入, 脫稅, 買古賣惜등 國民經濟에 害惡이 되는 方法에 의한 致富를 圖謀한 事實이나 公職에서 私利私慾을 取하여 致富한 事實, 不正과 野合한 致富등은 金力崇拜와 權力惡用의 例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이와같은 權力과 金力에의 탐욕은 企業의 內部的인 經營合理化에 의한 致富보다는 權力과 野合하여 不勞所得的인 致富를 圖謀하는 一獲千金의 꿈을 품고 企業을 秘密의 배일속에 감추기 위하여 血緣的인 親族主義, 惡循環的 不正의 反復을 招來하게 한다. 여기서 生産性에는 無關心해 지고 國際競爭力強化와 같은 進取的이고 自發的인 態度는 漸次로 없어지 가고 이들 不合理的 政府의 支援政策같은 것에 依存하게 한다.

N. 「인플레이션」(inflation)

우리나라의 經驗에서 볼 때 1960年까지는 相當히 急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다. 比較的 短期間이었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經驗은 國民들로 하여금 貯蓄心을 阻害했고 現物化執念, 不動產投資執念 및 奢侈를 助長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恐怖는 企業에게 可能한 限 적은 貨幣的資產을 가지며 보다 더 많은 不動產投資를 하게 하였으며 可能한 한 많은 貨幣的債務을 지고 自己資本은 可能한 限 적게 가지도록 行動케 한 것이다.

지금(都賣物價指數：100) 다음과 같은 네가지 경우의 財政狀態를 假定하자.

① 높은 他人資本依存型 貨幣債務者

現金 및 未受金	40	未支給金・支給어음	60
在庫 및 固定資產	60	自己資本	40
	100		100

② 낮은 他人資本依存型 貨幣債務者

現金 및 未受金	10	未支給金 · 支給어음	20
在庫 및 固定資産	90	自己資本	80
	<u>100</u>		<u>100</u>

③ 높은 他人資本依存型 貨幣債權者

現金 및 未受金	80	未支給金 · 支給어음	60
在庫 및 固定資産	20	自己資本	40
	<u>100</u>		<u>100</u>

④ 낮은 他人資本依存型 貨幣債權者

現金 및 未受金	80	未支給金 · 支給어음	20
在庫 및 固定資産	20	自己資本	80
	<u>100</u>		<u>100</u>

一定한 期間後 都賣物價指數가 200으로 上昇하였고 上掲 財政狀態에 아무런 變動이 없었다고 假定한다면 다음에 表示하는 바와 같은 自己資本成長率에 差異를 가져올 것이다.

①의 價値計算

現金 및 未受金	40	未支給金 · 支給어음	60
在庫 및 固定資産	120	自己資本	100 (250%)
	<u>160</u>		<u>160</u>

②의 價値計算

現金 및 未受金	10	未支給金 · 支給어음	20
在庫 및 固定資産	180	自己資本	170 (210%)
	<u>190</u>		<u>190</u>

③의 價値計算

現金 및 未受金	80	未支給金 · 支給어음	60
在庫 및 固定資産	40	自己資本	60 (150%)
	<u>120</u>		<u>120</u>

④의 價値計算

現金 및 未受金	80	未支給金 · 支給어음	20
在庫 및 固定資産	40	自己資本	120 (150%)
	<u>100</u>		<u>120</u>

以上の 計算은 「인플레이션」時代에는 可能한 限 他人資本依存度를 높이고 非貨幣的 資産의 比重을 많이 가지는 것이 企業成長의 捷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 現在 우리나라 企業들에 대한 非難의 하나가 他人資本依存도가 높고 不動産投資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같은 行動이 偶然한 것이 아님을 어렵게 이나마 推測할 수 있다.

日本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甚한 他人資本依存型이기는 하나 固定資産投資가 우리나라 企業一般보다 낮은 것이 特色이다. 이 後者의 것은 日本이 우리나라 企業보다 資本이 高度化하고 있을 것이라는 一般的 見解를 考慮에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企業의 固定資産投資比重은 實質的으로 더욱 過大하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11) J. Fred Weston, *Managerial Finance*, p. 259.

V. 社會의 諸規範

앞에서도 이미 指摘한 바와같이 安定된 社會란 社會的規範을 社會成員이 無理없이 遵守하고 社會成員이 社會的規範에서 逸脫할 때는 社會的인 制裁가 效果的으로 이것을 統制할 수 있는 社會라고 하였다. 또 法은 萬人에게 平等히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도 常識化한 이야기이다.

萬若에 社會的인 規範이 그 構成員間에 지켜지지 않고 社會的規範에서 逸脫할 때, 社會的인 制裁가 加해지지 않을 때, 또 法律이 差別的으로 適用될 때는 누구누가 人間行爲를 拘束하는 規範에 억매이기를 싫어하고 制裁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規範自體를 無視함으로써 秩序는 문란해지고 不安定한 社會가 되기 마련이다. 큰 法律만 잘 지키고 사소한 規範은 지켜지지 않아도 無妨하다는 것은 危險한 생각이다. 交通法規를 그자, 中央線을 넘어서는 안 되고 車線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規則이 있음에도不拘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企業家들은 公公然히 稅法대로 稅金을 다 내면 企業은 亡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는 稅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間接的인 表現인 것이다.

이와같은 環境下에서 國民들이나 企業家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로는 正直하게 社會的諸規範을 지키는 사람만이 損害를 보는 結果를 가지 올 것이고 正直함으로써 損害보는 回數가 늘어나면 그 다음 부터는 不正直이 當然視되는 境地에 이른다. 例로서 交通事故가 거의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발생하여 人命에 被害가 생기고 運轉手가 뺑소니 치는 것을 目擊한 者가 申告하였다고 생각하자. 警察署에서 證人으로 現場檢證에 立會하도록하여 3회 乃至 4회 出頭하지 않으면 안되고 申告者가 무슨 罪人인 양 法院으로 부터 出頭命令이 나오고 出頭하면 裁判延期를 거듭하기 일수이다. 이리하여 또 다시 3회 乃至 4회 出頭하여야 한다. 萬若 그 瞬間良心을 죽여 申告하지 않았더라면 平安하지 오라 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事故運轉手로 부터 원망도 안 사고 지냈을 것을! 이리하여 正直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大多數가 不正直을 마치 當然한 것으로 認識하게 된다.

新聞에 大書特筆한 不正事件이 時間이 흐름에 따라 忘却속으로 사라지고 張本人은 榮達하거나 호화로운 生活를 營爲한다. 어느 年度의 統計에 의하면 罷免된 官吏의 半數以上이 復職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¹²⁾ 이는 罷免이 不當하게 行해졌거나 아니면 罷免原因도 잘하면 復職될수 있는 社會規範의 문란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 경우 萬若 後者의 推測이 認定될 수 있다면 不正直한 行爲가 보다 더 優位를 차지하는 價値轉倒現象을 나타 낼 것이다.

政府가 支拂保證한 企業들을 亡하면서 企業主는 莫大한 不動產投資로 致富하는 非理는 有限責任이라는 制度 밑에 棲息한다. 國家나 國民 또는 企業이야 어찌되었던 나 個人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思考方法의 表現이며 純粹한 利己主義, 反社

(12) 國務總理室, 企調調整室.

會의인 行爲인 것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價値의 轉倒, 不正直 不誠實이 보다 더 支配的인 傾向을 나타내 줄 危險性을 시사한 것이다. 萬若 價値轉倒現象이 顯著하다거나 不正直, 不誠實이 보다 더 支配的인 社會가 된다면 企業뿐만 아니라 社會生活自體가 完全不信 狀態로 變할 것이다.

信用을 바탕으로 營爲되는 經濟活動이 社會의 一般的인 不正直, 不誠實로 말미암아 위축된다거나 障害를 받는다면 企業의 經營이라하여 正常을 維持할 수 있을 理가 없다. 預入한 手票가 不渡가 되었다면 自己가 支拂할 手票도 어찌면 連鎖的으로 不渡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法律이나 社會的約束이나 企業間的 契約이나 企業內的 規則이 罰을 무서워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個人의 信用, 企業의 信用, 國家의 信用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 經營合理化를 위한 環境改善方向

經營의 合理化는 여러가지 方向에서 規定지을 수 있겠지만 筆者는 經營의 合理化를 構成員 한사람 한사람의 能力을 合할때 그 人員數倍의 能力에 「프리스」 α 를 한 能力을 發揮케 하는 것으로 理解하고자 한다. 한사람의 能力과 다른 한사람의 能力을 組織化하였을 때 組織化되지 않았던 2人分以上的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을 때가 그 組織이 合理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合理化가 期해지려면 첫째 企業構成員全員이 一致團結하여 相互協力하는 風潮가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企業家族主義를 助長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우리의 傳統인 家族第一主義를 崩壞시키는 努力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家庭이나 家族을 돌 보지 않고 國家나 社會나 企業을 위하여 犧牲한 사람들을 國家나 社會나 企業이 一時的인 興奮속에서 讚揚하지 말고 民族의 榮로 받드는 永久的讚美와 經濟的支援을 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內部에서는 從業員이 企業을 위하여 充實히 일하는 限 終身토록 愉快하게 勤務할 수 있게하고 臨海, 山間的 會社所有 休暇宿舍에서 個人家族과 함께 짠 값으로 休日을 지날 수 있게 하거나 野球, 「테니스」, 水泳 등 施設이나 會社所有 墓地에서 無料로 永眠할 수 있게 하고 病院「싸이버스」도 提供하도록 함으로써 企業家族的 霧圍氣를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人間은 누구나 英석을 부리는 性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保護를 받고 신세를 지고 貴重하게 待遇받는 것을 願하는 心情이다. 父母는 아들이나 딸들을 保護하고 알뜰하게 돌본다. 이와같은 霧圍氣를 企業內部에 充滿시키는 것이 合理化의 基礎作業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企業家族主義는 血緣者雇傭을 回避하는 것에서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血緣者라도 다른 組織體에 歸屬되면 그의 父母나 血緣이 들보던 것과 같이 組織體가 들 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血緣者끼리 尙질 必要는 없는 것이다.

企業家族主義가 實現되려면 모든 社會的 規範이 누구에게나 公正히 適用되는 社會的 風土가 形成되어야 한다. 弱者에게는 不利하게 適用되고 强者에게는 有利하게 適用하는 弊習을 打破하여야 하고 企業이 弱者를 保護하는 强者의 役割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脫稅者나 犯法者 特히 法の 執行을 擔當하고 있는 者의 犯法行爲는 徹底히 다스려서 法の 尊嚴性을 보여야 하고 遵法精神이 普遍化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犯法者에게 罰을 주는 것 以上으로 強調하여야 할 事實은 道德에 대한 感受性을 높이는 일이다. 不正食品, 外國市場에서의 韓國信用의 추락行爲, 韓國人으로서의 矜持失墜等 不名譽를 社會的으로 污탄하는 것을 強調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데야만 罰보다도 수치를 더 重하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社會的 正義가 定立될 수 있는 것이다.

經營의 合理化는 政治權力과 官權의 善用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日本의 銀行貸出이 預受金의 90%에 達하고 個人企業의 他人資本依存受가 90%에 達하는 狀態下에서도 日本의 經濟가 눈부신 發展을 遂行한 理由는 優秀한 官僉가 그들의 權限을 有效適切히 驅使한 것에 있었다고 한다.⁽¹³⁾ 그들의 높은 個人貯蓄率(美國은 7%, 日本은 21%)에서 造成된 資金을 有效適切히 配分하였고 企業은 利益보다는 調和를 強調하고 강한 歸屬意識의 造成과 그것에 따르는 組織에의 忠誠心을 불려 이르킨 經營의 妙에서 그들의 經濟成長이 이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政治權力이나 官權도 지금까지 보다는 보다 더 効率的인 資金의 配分과 個人的利益보다는 國家의利益을 보다 더 重視하는 方向으로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야만 企業人뿐만 아니라 一般人으로부터 보다 더 信任받는 權力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國富의 보다 더 効率的인 利用을 可能케 할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企業經營이 內部的合理化를 期하는것 보다는 政治的權力이나 官權과 連結함으로써 不勞所得을 얻는것이 捷徑이라는 思考方式을 拂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經營者가 內部的인 經營合理化에 全力할 수 있을 때 우리의 經濟體質은 비로소 強化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極力 막아야 한다. 不動產投資를 장려하고 他人資本依存度를 높이며 貨幣債務者가 되려는 努力을 없애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은 阻止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自己資本額을 超過하는 他人資本에 대한 支給利子는 損金으로 認定하지 말아야 하며 銀行貸出利子率은 높여야하며 不動產投機抑制稅는 더욱 더 強化하고 空地稅制度도 導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貨幣債權者가 입는 損失과 不準化될뿐만 아니라 經營合理化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不勞所得으로 誤解될 可能性도 排除하게 되는 것이다.

13) P. Van, Zandt, *Japanese Culture and the Business Boom*, 中央公論 1970年, 2月號, pp. 123 ~127